

주제발표 1

해양사의 관점에서 본 이순신 장군의 위상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 명 호

해양사의 관점에서 본 이순신 장군의 위상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 명 호

- 목 차 -

1. 두만강 너머 변호(蕃胡)와의 전투경험 / 27
2. 조선전기 녹둔도 방어에 대한 주류 의견 / 29
3. 육전 위주의 주류 의견과 농업사회 / 32
4. 농업사회 속의 위대한 해양론자들 / 36
5. 이순신 장군의 수군론과 해양개발 / 39

1. 두만강 너머 변호(蕃胡)와의 전투경험

이순신 장군이 군사지휘관으로서 처음 전투를 벌인 외적은 두만강 너머의 변호(蕃胡)들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39살이던 선조 16년(1583) 겨울에 건원보(乾原堡)의 권관(權管)으로서 변호 울지내(鬱只乃)를 유인, 생포한 것이 외적과 치른 첫 번째 전투였다.¹⁾ 당시의 전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대책을 세우고 유인하였다.’라든가, ‘병력을 매복하여 생포했다.’라는 기록으로 본다면 정공(正攻)보다는 유인전술과 매복전술을 사용한 변칙공격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 벌인 두 번째 전투도 두만강 너머의 변호였다. 선조 20년(1587) 9월 1일에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겸녹둔보둔전관(兼鹿屯堡屯田官)’으로서 변호와 벌였던 전투가 그것이었다. 이때의 전투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정공보다는 변칙공격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의 전투 상황을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 실려 있는 ‘전승대비(戰勝臺碑)’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아! 이곳은 옛날에 충무공 이순신 공께서 변호(蕃胡)를 격파한 곳이다. 만력 정해년(선조 20년, 1587)에 공은 조산보만호로서 녹둔보둔전관을 겸하였다. 변호는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이끌고 와 목책을 포위하였다. 변호는 병사들을 풀어 크게 노략질하였다. 공은 진의 북쪽으로 3리쯤 되는 곳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방어하였다. 공은 적의 퇴로에 기병(奇兵)을 숨겨 두었다가 날이 저물자 되돌아가는 변호를 요격하였다. 공

1) “時年冬 爲乾原權管 時賊胡鬱只乃 大爲邊患 朝廷憂之 而不能禁討 公到任設策誘之 鬱只乃與蕃胡來到 公伏兵擒之”(『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1, 行錄<從子正郎芬>)

은 총포를 쏘고 북을 울리며 공격하여 수많은 번호를 살상하였다. 적은 크게 두려워하여 다시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훗날,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전승대(戰勝臺)라고 하였다. 선조 임진년(선조 25년, 1592)에 왜구가 크게 일어나 우리 강역을 분탕질하니, 대가는 파천하였고 종묘사직은 함몰되었다. 공이 처음으로 일어나 적을 토벌하여, 당진(唐津)에서 첫 번째로 격파하였고, 한산(閑山)에서 두 번째로 격파하였으며, 명량(鳴梁)에서 세 번째로 격파하였다. 공은 비록 끝내 순국하였으나 적세는 꺾이어 다시 떨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는 것은 실로 공의 힘이다. 공의 충성은 해와 달을 꿰뚫고 공열은 술에 새겼으니, 이까짓 작은 승전대는 공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이 기책(奇策)을 내어 적을 섬멸한 것은出奇殲賊(出奇殲賊) 소관(小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조정에서 공을 알아 써서 끝내 불세출의 공훈을 세운 것은 실로 이곳에서부터 싹텄으니 민몰시킬 수는 없다. 공의 5대손 이관상(李觀祥)이 이제 관북절도사가 되어 비석을 다듬고 천리에 글을 보내 나에게 음기(陰記)를 구하였다. 아! 옛말에 이르기를, ‘물을 차마 황폐하게 할 수 없고, 땅을 차마 황폐하게 할 수 없도다.’는 것인가 보다.”²⁾

이순신 장군이 번호와 전투를 벌였던 건원보와 녹둔도는 조선초기 두만강 가에 설치되었던 육진 소속의 진보였다. 건원보는 경원에서 남쪽으로 40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녹둔도는 경흥에서 남쪽으로 65리쯤 되는 곳에 있었다. 당시 건원보와 녹둔도는 두만강 너머의 번호를 막아내기 위해 설치한 최전방 진보였다.

조선 초기 세종 대에 4군 6진이 개척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북방 국경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실제 내지의 국방상 진보(鎭堡)는 회령 이남의 함경산맥과 혜산진(惠山鎭) 이남의 마천령산맥을 따라 배치되었다.³⁾ 회령 이북으로는 두만강을 따라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 6진이 설치되었다. 육진 너머 그리고 내지진보 너머로는 여진족들이 많이 거주하였으므로 조선초기에는 이들을 번호(藩胡)로 삼아 통제하였다. 예컨대 육진 너머의 번호로는

2) “嗚呼 此故忠武李公舜臣破藩胡之所也 萬曆丁亥 公以造山萬戶 兼鹿屯堡屯田官 藩胡望見秋熟 率其衆來圍木柵 縱兵大掠 公登鎭北三里許高峯 而禦之 伏奇兵於賊路 日暮邀其歸 放砲鳴鼓擊之 殺傷甚多 賊大懼更不敢近 後人名其峯曰戰勝臺 宣廟壬辰 倭寇大舉蕩我境 乘輿播越 宗社陷沒 公首起討賊 一破於唐津 再破於閑山 三破於鳴梁 公卒以身殉 而賊勢挫衄不復振 我東之得有今日 實公之力也 公忠誠貫日月 功烈銘彝鼎 蕞爾一片之臺 不足爲公之重輕 而公之出奇殲賊 已自小官始 且朝廷之知公用公 終樹不世之勳者 權輿於此 有不可泯沒 公之五代孫觀祥 今爲關北節度使 亟治石 千里走書 丐余記其陰 嗚呼 殆古所謂水不忍廢 地不忍荒者歟”(『이충무공전서』 권 10, 부록 2, ‘戰勝臺碑’)

3) 조선시대 함경도의 국방 및 후기 內地鎭堡의 변화에 대하여는
차용길, 「양강지대 관방체제 연구시론」, 『군사』 창간호, 1980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2005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內地鎭堡의 변화」, 『한국문화』 36, 2005 참조.

경흥진에 18부락, 경원진에 50부락, 온성진에 36부락, 종성진에 99부락, 회령진에 83부락 등 총 286부락이 있었다.⁴⁾

조선초기 육진 너머의 번호들은 틈이 날 때마다 두만강을 건너 침략해 오곤 했다. 이순신 장군이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겸녹둔보둔전관(兼鹿屯堡屯田官)’으로 있던 선조 20년(1587) 9월 1일의 녹둔도 침략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였다. 이순신 장군은 두만강을 건너 침략해오는 번호들을 정공(正攻)보다는 유인전술과 매복전술을 사용한 변칙공격을 이용해 무찔렀던 것이다.

두만강 너머의 번호를 상대했던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훗날 임진왜란 때 바다를 건너 침략한 왜적을 무찌른 것과 매우 유사하였다. 전승대비에서 ‘공이 기책(奇策)을 내어 적을 섬멸한 것은出奇殲賊(出奇殲賊) 소관(小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조정에서 공을 알아 써서 끝내 불세출의 공훈을 세운 것은 실로 이곳에서부터 싹텄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2. 조선전기 녹둔도 방어에 대한 주류 의견

‘전승대비’는 이순신 장군이 선조 20년(1587) 9월 1일에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겸녹둔보둔전관(兼鹿屯堡屯田官)’으로서 번호와 벌였던 전투를 승리한 전투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주류세력의 인식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인식도 아니었다. ‘전승대비’가 세워진 때는 영조 38년(1762)이었으니 실제 전투가 있었던 1587년에 비해 근 180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전승대비의 평가는 1587년 당시의 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비석이 세워지던 당시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선조 20년 당시의 주류세력들은 녹둔도 전투를 패배로 인식하였다. 예컨대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적호(賊胡)가 녹둔도를 함락하였다. 녹둔도 둔전을 처음 설치할 때에 남도의 궐액군(闕額軍)을 예측시켜 받가는 농부로 삼았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었다. 이 해에 조산만호 이순신에게 그 일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였는데, 가을에 풍년이 들었다. 경흥부사 이경록이 군리(軍吏)를 거느리고 이순신과 추수를 감독하였다. 추도(楸島)의 호추(胡酋) 마니응개(乚尼應介)가 경원지역에 있던 오랑캐 촌락에 화살을 전달하고 군사를 숨겨 몰래 엿보다가 농민이 들판에 나가고 책루가 빈 것을 보아 갑자기 들어와 포위하고 군사를

4) 김구진, 이현숙, <『制勝方略』의 북방방어체제> 『국역 制勝方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48쪽.

놓아 크게 노략질했다. 수호장(守護將) 오형(吳亨), 임경번(林景蕃) 등이 포위를 뚫고 책루로 들어가다가 모두 화살을 맞아 죽었다. 마니웅개는 참루를 뛰어넘어 들어오다가 수장(戌將) 이몽서(李蒙瑞)에게 사살되었다. 적호(賊胡)가 10여인을 살해하고 1백 60여인을 사로잡아 갔다. 이경록, 이순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 3인의 머리를 베고 포로된 사람 50여인을 빼앗아 돌아왔다. 병사 이일(李鎰)이 이순신에게 죄를 돌림으로써 자신은 벗어나기 위하여 형구를 설치하고 그를 베려 하자 이순신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전에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신보(申報)하여 더 보태주기를 청하였으나 병사가 따르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공첩(公牒)이 있다.’ 하였다. 이일이 수금하여 놓고 조정에 아뢰니 ‘백의종군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주상이 수병(戌兵)이 죽은 것을 애도하여 호당(湖堂)에 명하여 시를 지어 조문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둔전(屯田)이 폐지되었는데, 논하는 이들은 정언신(鄭彦信)이 실책한 것으로 탓하였다.”⁵⁾

비록 이순신 장군이 녹둔도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적 3인의 머리를 베고 포로된 사람 50여인을 빼앗아 돌아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선 측에서는 ‘10여인이 살해되고 1백 60여인이 포로로 잡힌’ 패전이었다. 이 같은 패전의 책임에서 모면하고자 당시의 북병사 이일은 자신의 수하 장수인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겸녹둔보둔전관(兼鹿屯堡屯田官)’ 이순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순신 장군은 ‘전에 군사가 적은 것을 신보(申報)하여 더 보태주기를 청하였으나 병사가 따르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공첩(公牒)이 있다.’고 항의하였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행록(行錄)’에 의하면 당시 이일 장군은 이순신 장군에게 ‘패군(敗軍)’의 책임을 물어 아예 살인멸구하려 했다고 한다.⁶⁾ 녹둔도 전투에 대한 문책 결과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의 처벌을 받았다.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선조 20년(1587) 9월 1일에 녹둔도 전투가 벌어지기 전, 이순신 장군은 수차에 걸쳐 북병사 이일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이일 장군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무래도 유성룡의 추천을 받아 조선보만호(造山堡萬戶)가 된 선조 19년(1586) 초

5) 『선조수정실록』 권 21, 20년(1587) 9월 1일

6) “鎰使供敗軍狀 公拒之曰 我以兵單 屢請添軍 而兵使不許 書目在此 朝廷若知此意 則罪不在我 且我力戰退賊 追還我人 欲以敗軍論之 可乎”(『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1, 行錄<從子正郎芬>)

이후일 것이다. 녹둔보둔전관(鹿屯堡屯田官)을 겸하게 된 선조 20년(1587) 8월부터 이순신 장군은 더욱 절박하게 지원군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을로 접어들어 녹둔도 둔전에서 추수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적호의 침략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일 장군이 지원 병력을 보내지 않아 녹둔도 전투에서 패했으니, 그 책임은 이일 장군에게 있다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항변이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과 이일 장군 사이의 책임공방에서 나타난 쟁점은 녹둔도에 지원 병력을 보냈느냐 않았느냐의 차원이었지만, 실제 당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의 핵심은 녹둔도 둔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닌지, 두만강 너머의 적호(賊胡)들을 육지의 기마병으로 막을지 아니면 녹둔도의 수군병력으로 막을 지에 있었다.

조선 초기 4군 6진이 개척된 이래로 양반관료들은 대체로 녹둔도 둔전을 반대했으며, 육지의 기마병을 이용하여 적호(賊胡)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유는 두만강 너머 적호(賊胡)의 공격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성종 17년(1486) 2월 22일에 어유소, 정문형, 오순 등 북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사람들은 ‘조산의 군사와 백성들은 출입하기를 꺼려서 녹둔도에 머물러 방수(防戍)하기를 원하지만, 야인(野人)들이 수시로 출몰하고 또 홍수를 만나면 물에 떠내려갈까 두려우니, 그대로 거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⁷⁾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곧 두만강 너머 적호(賊胡)의 공격이 염려스럽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녹둔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 조산에 기마병 등을 강화하여 적호(賊胡)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이전, 두만강을 넘어오는 적호(賊胡)들을 육지에서 방어하여 명장으로 이름이 난 신립 장군이나 이일 장군은 기본적으로 기마병을 이용한 전략을 사용하곤 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녹둔도 둔전을 반대하고, 육지의 기마병을 이용하여 적호(賊胡)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 의견이었다. 선조 20년(1587) 9월 1일의 녹둔도 전투 이후, ‘논하는 이들은 정언신이 실책한 것으로 탓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은 녹둔도에 둔전을 설치한 정언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음을 알려준다. 이 결과 녹둔도 둔전은 폐지되었다. 이런 사정에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거의 대부분 녹둔도는 빈 섬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비해 녹둔도에 둔전을 경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선조 16년(1583) 12월 1일에 녹둔도에 둔전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순

7) 『성종실록』 권 188, 17년(1486) 2월 22일

찰사 정언신(鄭彦信)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⁸⁾ 이 사실에 대하여 실록에서는 ‘녹둔도는 강 북쪽 언덕과 가까워 인마(人馬)가 통행하였으며, 호촌(胡村)이 몹시 가까운데 목책을 설치하고 이졸(吏卒) 약간 사람만을 두어 방수(防戍)가 단약하니 토인들이 걱정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당시 녹둔도의 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녹둔도가 북쪽의 대안과 거의 연결하여 적호(賊胡)의 인마(人馬)는 통행이 가능한데 비해, 남쪽과의 대안 사이에는 넓은 강물이 흘러 배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측 병사들은 배를 타고 녹둔도로 통행해야 했으므로 이들은 일종의 수군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들 수군을 이용해 말을 탄 적호(賊胡)의 기마병을 상대한다는 것은 육전에 익숙한 육군지휘관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이일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지원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개인감정 이상으로 수군을 이용한 녹둔도 방어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일 장군의 입장은 바로 녹둔도 둔전을 반대하고, 육지의 기마병을 이용하여 적호(賊胡)를 막아야 한다는 주류 의견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에 비해 녹둔도에 병력을 지원해줄 것을 수차 요청한 이순신 장군의 입장은 녹둔도의 둔전을 강화하고 수군을 이용해 적호(賊胡)를 막자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육전 위주의 주류 의견과 농업사회

이순신 장군의 행록에 의하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인 선조 24년(1591)에 조정에서는 신립 장군의 건의에 따라 수군을 혁파하고 육전에 주력할 것을 왕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⁹⁾ 당시 이런 요청을 한 사람들은 신립 장군으로 대표되는 육군 지휘관들, 그리고 의정부의 대신들이었다. 결국 당시의 주류 양반관료들이 ‘수군을 혁파하고 육전에 주력할 것’을 주장한 셈이었다. 이런 주장은 두만강 너머의 적호(賊胡)를 방어하는 문제에서, 녹둔도 둔전을 반대하고, 육지의 기마병을 이용하여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았다.

이 같은 주류 의견은 당시 조선이 농업 국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사회에서 모든 사고의 기준은 당연히 토지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방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토지

8) 『선조수정실록』 권 17, 16년(1583) 12월 1일

9) “朝政因申位啓辭 請破舟師 專意陸戰”(『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1, 行錄<從子正郎芬>)

위주의 사고방식에서는 육군과 육전 위주의 주장이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조는 이념이나 실제에서 명실상부한 농업 국가였으며, 모든 문제에서 사고의 중심에는 언제나 토지가 있었다. 이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왕조의 국가제사를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국조오례의』에는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거행했던 유교식 제사가 길례(吉禮)라는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들의 중요도와 품격에 따라 신들을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중요한 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大祀), 그 다음이 중사(中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사(小祀)였다. 따라서 제사등급으로 구분된 각각의 신들은 해당 신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었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대상으로 하던 사직제(社稷祭)는 대사로 구분되었다. 이에 비해 바다의 신을 대상으로 하던 해신제(海神祭)는 중사였다. 이는 조선시대 위정자들이 바다보다는 토지를 훨씬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¹⁰⁾

토지와 바다에 대한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인식은 토지신과 바다신에게 올리는 축문(祝文)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토지신인 국사(國社)에 올리는 축문에서 토지는 “덕거재물(德鉅載物)”이라고 표현되었다.¹¹⁾ 이는 “덕이 커서 만물을 싣는다.”는 의미이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싣고 있는 것은 토지라는 의미로서,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은 지구의 중심을 토지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사직은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제사인 대사(大祀)일 뿐만 아니라 왕조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다. 사직의 안위라는 말은 왕조의 안위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이는 토지와 곡식에 사활을 걸고 있던 농업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주 관심은 토지, 곡식 그리고 농민에 두어졌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토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토지가 움푹 들어가면 골짜기처럼 되고 불쑥 솟으면 산처럼 된다. 이런 존재들이 바로 바다를 비롯하여 호수와 강 그리고 큰 산인 악(嶽)과 그 외의 명산 등이었다. 이런

10) “大祀 社稷宗廟永寧殿 ○中祀 風雲雷雨嶽海瀆先農先蠶雩祀文宣王歷代始祖”(『國朝五禮儀序例』 吉禮, 辨祀條).

11) “社稷 國社稱德鉅載物”(『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祝板條).

존재들에 대한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인식도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다.

예컨대 『국조오례의』에서 바다는 “백곡지왕(百谷之王)”으로 표현되었다.¹²⁾ 이는 “수많은 골짜기 중에서 가장 큰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위정자들이 바다를 골짜기처럼 토지가 움푹 들어간 존재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큰 산인 악(嶽)은 “준국우천(峻極于天)”¹³⁾, 명산(名山)은 “팽박줄물(磅山蓐줄(山+卒)崔)”로 표현되었다.¹⁴⁾ “준국우천”은 “하늘 높이 우뚝 솟았다”는 의미이고 “팽박줄물”도 “울퉁불퉁 높이 솟았다.”는 의미이다. 대천의 경우는 “성본윤하(性本潤下)”로 표현되었다.¹⁵⁾ 명산대천 등에 대한 이런 표현들에서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바다나 대천을 토지가 움푹 들어간 존재로 인식하였고, 악이나 명산을 토지가 불쑥 솟아난 존재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만물 인식이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세상의 만물을 토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토지는 움푹 들어가거나 불쑥 솟아난 존재에 의해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토지는 움푹 들어가거나 불쑥 솟아난 존재에 의해 경계 지워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토지를 경계 지워주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산이나 강 또는 바다와 같은 자연적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경계 지워진 토지는 전통시대의 자연적인 구획일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구획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작계는 마을로부터 면, 군, 도, 국가라는 인위적 구획의 바탕은 대부분이 산이나 강 또는 바다와 같은 자연적 구획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에게 산이나 강 또는 바다는 토지를 쪼개거나 가르는 경계로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중심은 토지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이나 강 또는 바다는 경계나 주변으로 인식되기 일쑤였다.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산이나 강 또는 바다와 같은 자연적 경계 위에 관습적 장애물과 법률적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막으려 했다. 예컨대 작은 언덕이나 산 또는 개울, 강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의 경계를 넘으려 하면 각 마을마다 텃세를 통해 경계 통과를 막으려 했다. 이보다 큰 산이나 강, 바다의 경계에는 국가에서 관(關)이나 도(渡)를 설치하여 통행인들을 검문 검

12) “海稱百谷之王”(『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祝板條).

13) “嶽稱峻極于天”(『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祝板條).

14) “名山稱磅嶽(山+卒)崔”(『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祝板條).

15) “大川稱性本潤下”(『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祝板條).

색했다.¹⁶⁾

그러나 조선시대에 가장 큰 경계는 역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즉 국경이었다. 조선과 중국은 바다와 강이, 조선과 일본 사이는 바다가 국경이었다. 조선시대 개인들에게 이 국경은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이었다. 국가에서 개인의 국경통과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형률(刑律)로 이용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의해 강제되었다.¹⁷⁾ 『대명률직해』에서 개인의 국경통과를 금지한 법률 규정은 ‘사월모도관진(私越冒度關津’ 조항과 ‘사출외경급위금하해(私出外境及違禁下海)’의 두 조항이었다. 먼저 개인의 국경통과를 금지한 ‘사월모도관진(私越冒度關津’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변경의 방호소를 넘어가면 곤장 100대에 강제노동 3년에 처한다. 변경을 넘어 타국의 경계 안으로 넘어가면 목을 매달아 죽인다. 지키는 사람이 실정을 알고도 보냈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벌한다. 몰랐다면 각각 3등을 감한다.”¹⁸⁾

위 조항은 개인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사형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선의 현실에서 위 조항에 나오는 관(關)이나 진(津)은 압록강과 두만강 등 중국과의 국경선에 있던 관이나 진이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육지나 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사형시킨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바다를 통해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에 보듯이 ‘사출외경급위금하해(私出外境及違禁下海)’ 조항이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었다.

16) 조선시대의 형률(刑律)로 이용된 『대명률직해』에 의하면 허가증 없이 관이나 진을 넘으려 한 자는 곤장 80대의 벌을 받았다. 만약 셋길을 통해 몰래 관이나 진을 넘으려 한 자는 곤장 90대의 벌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허가증으로 관이나 진을 넘으려 한 자는 곤장 80대의 벌을 받았다.(『대명률직해』 兵律, 私越冒度關津條).

17) 조선은 건국 이래 국가운영과 관련된 법률들을 정비하였다. 그것은 세종대의 集賢殿에 의해 본격화 되었으며 대부분 성종 대에 완성되었다. 예컨대 『經國大典』과 『國朝五禮儀』가 그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刑律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대명률』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 결과 『經國大典』 刑典의 ‘用律’ 조항에 ‘用大明律’이라고 明示하였다. 이 조항은 조선시대 내내 유효하였으므로, 『대명률』은 조선시대 내내 刑律로 이용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대명률』의 刑律과 관계없이 조선에서 자체 제정하여 『經國大典』이나 『續大典』에 규정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명률』의 규정이 아니라 『經國大典』이나 『續大典』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조선은 『대명률』을 이용하기 위해 『대명률직해』 등을 편찬하였다. 『대명률직해』는 당시 법률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던 중인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대명률』을 吏讀로 번역한 것이었다.

18) “邊境防護所 過越爲在乙良 杖一百 徒三年 遣 因此彼境出去爲在乙良 絞死齊”(『대명률직해』 兵律條, 私越冒度關津條).

“무릇 말, 소, 군사용 철물, 동전 및 비단을 가지고 국경 밖에서 사사로이 장사하거나 바다를 내려가 매매하면 곤장 1백대에 처한다. 짐을 나른 사람 및 소나 말을 끌고 간 사람은 1등을 감한다. 철물 및 배와 말 등은 모두 몰수한다. 몰수품 중 10분의 3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사람이나 군기(軍器) 등을 팔았다면 목을 매달아 죽인다. 장사 중에 군사 정보를 누설하였으면 목을 베어 죽인다. 해당 지역의 관리나 방어인이 공모했거나 또는 알고도 보냈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벌한다. 늦게 발견했다면 3등을 감하고 죄는 곤장 1백에 그친다. 군인은 또 1등을 감한다.”¹⁹⁾

이 규정이 이른바 명나라 때의 해금(海禁) 조항이었다. 이 중에 군사정보를 누설했다면 참수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선 사람이 외국인과 무역 중에 체포되었다면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육지, 강, 바다를 막론하고 개인의 국경통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의해 조선은 두만강, 압록강, 바다로 둘러싸인 국경 선 안에 스스로 폐쇄되어 버렸다고 하겠다. 단지 예외적으로 국가의 공식 사절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사고방식에서는 바다로의 진출, 수군의 강화, 도서의 개발 같은 발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 문제에서도 수군과 해전 보다는 육군과 육전 위주의 사고방식이 주류일 수밖에 없었다.

4. 농업사회 속의 위대한 해양론자들

조선왕조는 1392년 7월 17일에 태조 이성계가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름으로써 건국되었지만, 실제로는 1388년의 위화도 회군이 건국의 출발점이었다. 회군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조준,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을 내세워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했다.²⁰⁾ 특히 대사헌에 발탁된 조준은 당시의 여론을 주도하며 고려 말의 개혁정책을 주도했다.²¹⁾ 조준은 정도전과 달리 태종 이후에도 계속 권력 중심부에 있었으므로 그의 사상과 정책은 그대로 조선초기의 국가정책으로 지속되었다.

19) “凡馬牛軍用鐵物銅錢及段疋指是旅 地境外良中 私音丁興利爲旅 下海賣買爲在乙良 杖一百齊 負持人及牛馬牽持人乙良 減一等遣 鐵物及船馬等乙良 竝只沒官爲平矣 其內十分爲限三分乙良 進告人亦中賞給齊 人物軍器等乙 如前放賣爲在乙良 絞死齊 因此軍事乙 漏通爲在乙良 斬齊 所在官司及防禦人等亦同情爲旅 知而故放爲在乙良 犯人以罪同遣 遲晚覺察爲在乙良 減三等 罪止杖一百齊 軍人乙良 又減一等”(『大明律直解』 兵律, 私出外境及違禁下海條).

20) 김당택, 「이성계의 위화도회군과 제도개혁」 『전남사학』 24 (2005).

21) 장득진, 「趙遂의 정치활동과 그 사상」 『사학연구』 38 (1984).

1388년 5월 22일,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6월 1일 개경에 도착하여 우왕과 최영을 생포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이성계는 곧바로 조준을 발탁하여 지밀직사사겸대사헌(知密直司事兼大司憲)으로 삼았다. 이성계의 후원을 얻은 조준은 대사헌의 자격으로 토지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연이어 올렸다. 당시 이성계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조준에게 물어서 행하였다고 한다.²²⁾ 따라서 조준이 사헌부의 이름으로 올린 각종 개혁안이나 시무책(時務策)들은 그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건국 주체세력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조준은 대사헌이 된 직후인 1388년 7월에 사전(私田)개혁을 요구하는 제1차 전제개혁안을 올렸다. 이어 8월에는 국정전반의 개혁안을 담은 시무책을 올렸는데, 그 중의 한 부분이 수군, 어염, 목축, 도서, 연안 등에 관련된 개혁안이었다. 조준은 수군, 어염, 목축, 도서, 연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제도(諸道)의 어염과 목축의 번식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태조(고려 건국시조 왕건 태조)께서 아직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지 못했을 때 먼저 수군을 다스려 친히 누선(樓船)을 타고 금성(金城)을 쳐서 장악함으로써 여러 섬의 이권이 모두 국가에 소속되었습니다. 그 재력에 힘입어 드디어 삼한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압록강 이남은 거의가 모두 산이고 비옥한 토지는 바다에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옥한 들판에 있는 수 천리의 논밭이 왜구에게 함락되어 황폐해져서 갈대숲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어염과 목축의 이익을 잃었고, 또 기름진 들판에 있는 좋은 논밭의 수입을 잃어버렸습니다. 원하건대 중국 한나라에서 백성을 모집하여 변방에 채워 흉노를 막은 고사를 따라서, 망읍(亡邑)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자에게는 20년을 기한하여 그 밭의 전세를 받지 말고, 그 백성을 부역시키지 말며, 수군만호에 전속시켜 정보를 수축하고, 노약자를 불러 모으며, 먼 곳까지 척후를 두고 봉화를 신중히 하며,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농사짓고, 고기 잡고, 소금 굽고, 철공질하여 먹고 살며, 때때로 배를 만들다가, 왜구가 오면 들을 비우고 성보 안으로 들어가고, 수군을 시켜 치게 하소서. 함포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하면 몇 해가 되지 않아서 流亡했던 사람들이 모두 고향 고을로 되돌아와

22) “太上王仗義回軍 執退瑩 欲大革積弊 一新庶政 雅聞遼重望 召與論事大悅 擢知密直司事兼司憲府大司憲 事無大小 悉以咨之”(『태종실록』 권9, 5년 6월 27일조)

변경주군(邊境州郡)이 충실하게 되고 제도(諸島)가 점차로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함이 많아져 수군은 익숙해지고, 왜구는 도망가 변방 고을은 편안해지며 조운이 편리해 창고가 채워질 것입니다.”²³⁾

조준은 고려 태조 왕건의 성공도 해양과 도서개척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토지뿐만 아니라 해양과 도서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이 비록 농업사회로서 토지 위주의 사고방식이 주류였던 사회였지만 그 속에서도 해양을 중시하는 사상가나 선각자가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그 같은 사상가나 선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에는 해양과 도서가 개척되고 그와 더불어 국력이 뻗어나가곤 했다. 조준이 정치관의 주류 세력으로 활동하던 태조, 정종, 태종은 조선시대 500년간 보기 드문 확장과 발전의 시대였다.

조준 이상으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선각자였던 다산 정약용도 바다와 도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을 하였다. 다산은 서남해의 도서가 대략 1천개나 되는데, 조선이 건국한 이래로 ‘사신을 보내 이 강토를 다스리지 않았다.’²⁴⁾고 비판하면서, 바다와 섬, 그리고 바다사람들을 전담할 기구로 수원사(綏遠司)라는 관제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수원사에서 바다 사람들의 호적을 관리하게 하고, 부역을 공평히 하게하며, 불법침탈을 금지하게 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²⁵⁾

이 같은 다산의 제안은 농업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다산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산은 바다를 기왕의 위정자들처럼 “백곡지왕(百谷之王)”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국지유수(國之幽藪)”²⁶⁾로 보았다. “국지유수”란 “나라의 그윽한 숲이나 늪”이란 의미이다. 그러므로 다산에게 바다는 골짜기 중의 골짜기가 아니라 땅의 연속으로서의 숲이나 땅 안의 늪으로

23) “大司憲趙浚陳時務曰(중략) 諸道魚鹽畜牧之蕃 國家之不可無者也 我神聖之未平新羅百濟也 先治水軍 親駕樓船 下錦城而有之 諸島之利 皆屬國家 資其財力 遂一三韓 自鴨綠以南 大抵皆山 肥膏之田 在於瀕海 沃野數千里之稻田 陷于倭奴 兼葭際天 國家既失魚鹽畜牧之利 又失沃野良田之入 願用漢氏募民實塞下 防匈奴之故事 許於亡邑荒地開墾者 限二十年 不稅其田 不役其民 專屬水軍萬戶府 修立城堡 屯聚老弱 遠斥候 謹烽火 居無事時 耕耘魚鹽鑄冶而食 以時造船 寇至 清野入堡 而水軍擊之 自合浦以至義州 皆如此 則不出數年 流亡盡還其鄉邑 而邊境州郡既實 諸島漸次而充 戰艦多而水軍習 海寇遁而邊郡寧 漕轉易而倉廩實矣”(『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8월)

24) “乃自開闢以來 朝廷未嘗遣一介之使 疆理此土”(『經世遺表』 秋官 刑曹, 綏遠司).

25) “謂宜別建一司 以掌還國之海島 名之曰綏遠司 典其版籍 均其賦斂 禁其侵魚 除其病苦”(『經世遺表』 秋官 刑曹, 綏遠司).

26) “臣以爲 海島者 我國之幽藪也”(『經世遺表』 秋官 刑曹, 綏遠司).

서 무한한 가능성의 대상이었다.²⁷⁾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산은 조선시대 주류 지식인들이 가졌던 토지 위주의 사고방식을 뛰어 넘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5. 이순신 장군의 수군론과 해양개발

선조 24년(1591)에 조정에서 ‘수군을 혁파하고 육전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은 ‘바다의 도적을 막는 것은 수군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전(水戰)과 육전(陸戰) 그 어느 것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는 내용을 조정에 치계(馳啓)하였다. 치계란 급하게 보고하였다는 뜻이니, ‘수군 혁파’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이 다급하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군혁명’에 대한 요청을 취소하였다.²⁸⁾ 당시 이순신 장군은 47세였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이었다. 이 치계에 의하여 수군이 보존되었고, 그 결과 한산대첩, 명량대첩 등이 가능했으며 최후의 승리도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의 치계는 임란 때의 승전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혁파’를 반대한 기본 입장은 ‘바다의 도적을 막는 것은 수군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에 의해 볼 때, 전장에서 수군이 용맹한 전사로 변모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선조 26년(1593) 9월의 보고에서 이순신 장군은 수군의 장점을 이렇게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겁쟁이가 심중팔구이고 용감한 자는 10명 가운데 한두 명입니다. 평상시 이들을 분별하지 않고 서로 뒤섞여 놓으므로 소문만 듣고도 곧바로 달아날 생각을 품어 수시로 경동하고, 다투어 달아납니다. 그러니 비록 용감한 자가 있어도 홀로 칼날을 무릅쓰고 죽음으로 돌진할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선한 병졸을 용맹하고 지혜로운 장수에게 부쳐, 그 형세를 따라 잘 인도한다면 오늘날의 변이 분명 이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수전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군병들이 모두 배 안에 있으면서 적선을 바라보고 비록 도망가고자 해도 그 형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물며 노를 독려하며 급히 북을 칠 때에,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군법이 뒤

27) “臣以爲 海島者 我國之幽蔽也 苟一經理 將有無名之物 水湧而山起”(『經世遺表』 秋官 刑曹, 綏遠司).

28) “公馳啓以爲 遮遏海寇 莫如舟師 水陸之戰 不可偏廢 朝廷可其奏”(『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1, 行錄<從子正郎芬>)

따르니 어찌 심력을 다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거북선이 먼저 돌격하고, 판옥선이 다음으로 나가 연이어 지자총통, 현자총통을 쏘아대고 이어서 대포와 화살, 돌을 우박처럼 쏟아 부으면 적의 사기가 꺾여 빠져죽을 틈도 없습니다. 이것이 수전의 쉬운 형세입니다.”²⁹⁾

수군이 전장에서 이렇게 용맹한 전사로 변모하기에 조선수군은 강했고, 승리했다. 수군이 전장에서 이렇게 용맹하게 변모하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언급대로 ‘도망가고자 해도 그 형세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사지(死地)나 마찬가지로 전장에 임한 수군들이 살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웠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순신 장군은 수군은 수군이기에 용감할 수밖에 없는 속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용감한 수군이 바다의 도적을 잘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수군의 장점 못지않게 약점도 잘 알았다. 수군의 특성상 많은 전선을 건조해야 했고, 중화기를 마련해야 했으며 또 군량을 준비해야 했다. 전선과 중화기 그리고 군량이 없는 수군은 수군이라 할 수 없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선과 중화기 그리고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기 위해 ‘자나 깨나 걱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전선과 중화기 그리고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서남해의 도서지역에 둔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양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은 선조 31년(1598) 2월에 고금도로 삼도수군통제영을 옮긴 후 고금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행록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은 ‘농민을 모집하여 경작함으로써 군량을 공급하였다. 이때 수군의 형세가 번성하자 남쪽의 백성들 중에 공에게 목숨을 의지하는 자가 또한 수만가가 되니 병위(兵威)의 장엄함이 한산진보다 10배나 되었다.’³⁰⁾고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군을 강화하고, 해양 도서를 개척하며, 도서주민들을 잘 다스린 결과였다. 이순신 장군의 해양개발은 근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과 방법에서 조준이나 다산이 제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수군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준이나 다산 못지않게 뛰어난 해양 사상가나 해양 선각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9) 『이충무공전서』 권 3, 狀啓 22, 條陳水陸戰之狀

30)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1, 行錄<從子正郎芬>